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4년 11월

선교편지 제 181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UN 산하의 '유엔 재난 위험 경감 사무국' (UN DRR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은 지난 2000~2019년의 20년간, 전 세계에서 자연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 중에 '필리핀'을 선정했습니다. 매년 평균 20여개의 태풍이 필리핀을 지나 가는데, 그 때마다 집중 호우와 강한 바람, 폭풍우로 인한 하천 범람, 산사태 등의 피해는 물론이고, 수 많은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다나오 섬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지진 피해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사회와 환경에 막대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손실은 태풍 등과 같은 자연 재해가 더 크지만, 지진은 가장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우울증 및 불안 장애 등과 같은 정신 질환까지 막대한 간접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부임한지 어느덧 17년 째가 되었는데, 이곳에 오기전에는 뉴스를 통해서나 들을 수 있었던 강력한 '태풍, 홍수, 가뭄, 화산 폭발, 지진' 등의 자연 재해를 지금은 일상 생활 중의 일부로 항상 경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낮 12시, 비상 상황에 대한 경계와 훈련으로 온 동네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낮 12시가 아닌 시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이 소리를 들으면, 기본적인 짐만 챙겨서 지대가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를 해야 하고, 지진이 날 때 사이렌이 울리면 집 밖으로 나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태풍과 홍수로 인해 마을이 물에 잠겨 교회가 침수되었고, 지진으로 마을 건물들이 손상되고, 교회 건물도 많은 피해를 입는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 연속해서 강력한 태풍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온통 피해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 시각에는 학교, 은행 및 관공서 등의 모든 공공 기관들이 모든 기능을 정지하고, 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썽로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곳 주민들을 덮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 123:2)

10월 중순 주일,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가는 길에 여느 때와 달리 중무장한 군인들이 디고스 시내의 길목마다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디고스 내에 있는 교도소에서 재소자 두 명이 면회객과 함께 온 여자 어린이를 인질로 자동차를 탈취해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는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디고스 내에는 두 곳의 교도소가 있는데, 한 곳은 시(City) 정부에서 운영하는 교도소이고, 다른 한 곳은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마띠 주(State)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이 주정부 교도소가 아닌 시정부 교도소에서 발생하였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 인질로 잡힌 여자 어린이도 무사하게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으로 주정부 마띠 교도소의 안전 및 경계가 훨씬 더 강화되어 교도소 사역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내에 중무장한 경계 인력이 그 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되었고, 재소자들에게 줄 간식부터 성경책까지 살살이 검색을 하게 되어 예배 전 준비 시간이 그전보다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재소자들이 머물고 있는 철창안으로 더 이상 들어 갈 수 없게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재소자와 철창을 가운데 두고,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도 모범수로만 제한을 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준 것 만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재소자의 탈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교도소 내로 모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여, 오랫동안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주 들려지는 예배가 더욱 더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재소자들에게 대표 기도와 찬양 인도를 하게 하는데,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저의 기도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저들의 회개와 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한지, 가슴 속 깊이 뜨거운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언제 다시 전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이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를 시작한 재소자들이 이번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 39:21)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띠 은혜교회'를 통한 지역 복음화 사역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학교는 물론이고, 새롭게 주님을 믿기 시작한 장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 청년들을 위한 친교와 성경공부, 그리고 장학 사역에 속한 대학생들을 위한 각종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미처 알지 못했던 주변의 주민들을 마띠 은혜교회로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셔서, 새로운 얼굴을 익히며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벅찰 지경입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새롭게 등록된 교우들의 집들을 심방하며,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각 부서의 헌신된 지도자 훈련도 매주 병행하고 있는데, 한 주일이 짧을 정도로 바쁘게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마띠 은혜교회'가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 110:3)**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교회 / 아팔라야 예일교회 /
마띠 은혜교회 / 마띠 소망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장학 사역을 위하여
3.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을 위하여
4.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214-17 45 th Drive, Bayside, NY 11361

